9기 전여대협 평가 (초안)

0. 평가를 하기에 앞서

1. 9기 전여대협 총평

대중사업이 더욱 규모있게 진행되었으나, 전반 운동의 흐름과 전망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1회적인 측면이 많았다.

사람사업의 전형 부족 (핵심일꾼의 부족)

핵심투쟁과제를 설정할 때 총체적 통찰이 부족합니다.

2. 9기 전여대협 대중투쟁 평가

1)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 반미자주화 투쟁 평가

전쟁반대, 이라크파병반대를 비롯하여 6.15공동선언 이행투쟁,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여학단위의 자체 사업을 계획,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올초 미국에 의한 이라크전쟁에 대해 국내외적 비난이 빗발치고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여학단위에서도 반전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쟁반대, 이라크파병반대에 대한 전체적인 투쟁과 사업은 물론이고, 특히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직간접적인 피해 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우들에게 의식화하였습니다. (자체적인 선전전이나 사업은?)
또한 8월에는 지역에서 여성단체들과 여학단위가 함께 대구경북지역 통일여성캠페인, 광주전남여성통일~~준전지~~ 등을 진행했으며, 8.15 민족공동행사 때에도 여성통일운동의 내용을 더욱 담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과 반미자주화 투쟁 등에 대한 여학단위 자체의 계획은 여전히 부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조국통일, 반미자주화 투쟁에 있어 여성통일운동의 내용과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여, 여학단위가 주동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국통일, 반미자주화와 여성해방의 연관고리 및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학단위에서 공동선언 이행, 반미자주화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실천적 정형이 부족합니다. 여성통일운동의 내용과 전망이 불투명하다보니 많은 여학단위가 주동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8.15때 개최된 3회 여성통일한마당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도 여성통일운동이 단편적인 내용과 형식에 머물러있는 것이 한계로 나섭니다.

정세 인식이 대체로 부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정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정세는 격동적으로 흘러가는데 이에 대한 토론은 별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조직생활 속에서 정세 토론이 일상적으로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정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절박성이 부족하다보니 주동성도 떨어졌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2) 반가부장제 운동 평가

(반가부장제 운동 전반을 평가하되, 그 중 중심적으로 진행한 투쟁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반가부장제 운동 전반 평가>

반가부장제 운동 전반이 사안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가부장제 운동에 주를 많이 돌리고 활동해왔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대중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내용의 가부장적 모순들을 제기하고 의식화했습니다.

그러나 반가부장제 운동의 의식화가 본질적이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의식화가 1회적이었던 점과 핵심을 잡지 못하고 여러 문제를 제기한데 그친 점, 학우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색과 연구가 부족했던 점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반성폭력 운동>

상반기 반성폭력 운동을 핵심적 과제로 삼고 활동해왔다.
많은 대학에서 '반성폭력'을 핵심 내용으로 강연, 여러 매체를 통한 일상의식화 및 기획선전,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문화제 등의 대중사업을 진행했다. 각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핵심적 과제로 삼고 활동했던 것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를 성사할 수 있었다. 반성폭력 문화제를 준비해가면서 여러 대학에서 학우들과 함께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대중적으로 진행하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러 대학이 실제로 대중적으로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성폭력 문화제는 여러 대학에서 반성폭력운동의 흐름을 주동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점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반성폭력 운동이 구체화,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각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꾸준히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폭력 운동이 답습되거나 같은 내용의 의식화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과 생활을 토대로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마련하고 활동을 계획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의식화에 머무르거나 대중사업에서 1회적으로 진행하는 기획사업에 불과한 것이다. 몇몇 대학에서 성폭력 실태조사나 의식조사 등을 진행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분석하여 반성폭력 운동의 밑천으로 삼지 못하였다.
각 대학마다 학우들의 구체적 인식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대학 학우들의 인식정도와 현황에 맞게 심화시킬 과제가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각 대학마다 부모성함께쓰기,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호주제 폐지 강연회, 호주제 폐지 기획전 등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으며, 대학 내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특히 경희대의 경우, 학우들과 일꾼들을 대상으로 호주제 폐지 강연회는 물론 여러 차례에 걸친 의식화를 진행했으며, 경희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함께 활동하여 30명 이상의 일꾼들이 부모성함께쓰기(혹은 부모성안쓰기)에 직접 동참하도록 사업하고 그 일꾼들을 모아 총여에서 직접 강연을 하고 함께 부모성함께쓰기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대중사업에서 학우들과 함께 부모성함께쓰기 열쇠고리를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는 등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더욱 본질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주동적~~ 흐름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호주제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법을 폐지하는 것을 넘어서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화와 조직화가 진행되어야 하는 운동이다. 단순히 하나의 법을 폐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호주제 폐지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 대학에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동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여성단체들에서 진행하는 호주제 폐지 운동의 흐름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학우들을 더욱 근본적으로 의식화하고 학우들을 호주제 폐지 운동의 주체로 세우는데 부족했던 측

면이 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의 주동적이고 기동성있는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

시기적절하고 기동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올초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여러 흐름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시기적절하게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하반기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의결했을 때 이에 대해 전여대협 중앙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성명서는커녕 속보선전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하반기 호주제폐지 과학생회 선언운동의 경우, 각 대학의 흐름이 늦어지면서 선언운동을 모으고 기자회견을 하는 일정이 늦어졌고, 기자회견 이후에도 적절한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던 바 있다.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과 모습에 대한 의식화 활동>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과 모습에 대한 교양사업을 진행한 것 자체가 성과입니다.

지난해에 진행했던 의식조사 및 각종 인터넷 교양(문제제기)의 성과에 이어 올해에도 상반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의 <한총련 일꾼들의 의식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전여대협 기획연재-양성평등한 학생운동사회를 위하여>를 진행하는 등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비롯한 가부장적 인식에 대한 교양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여대협의 각종 제기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다소 표면적이었다는 비판(한계)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연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에 대해 더욱 본질적이고 전면적으로 의식화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연재를 진행한 것은, 교양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며 전면적으로 교양하기 위함이었으며, 일방적이지 않게 토론을 유도하며 더욱 본질적으로 의식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연재가 2회에 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각 대학에서 기획연재의 내용과 학생운동사회 가부장적 인식에 대한 토론을 여학단위에서 보장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의식화가 한 단계 심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각종 논의, 논란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한총련 홈페이지에서는 여성주의에 대한 사안별 논란을 비롯해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전반 내용을 다루는 논의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일꾼들이 개별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방치해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여러 의견들을 잘 활용하면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양사업 뿐만 아니라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적극적이며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제

- 이후에 이런 내용을 토론하고 교양해가는데 있어서는 각 대학의 여학일꾼들이 우선적으로 토론, 교양하고, 대학 여학일꾼들이 주체가 되어 대학 차원의 토론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여성민중생존권 투쟁 및 연대사업 평가

농활을 통해 전여농과의 연대사업이 강화되었으며, 농학 4자 연대에 대한 관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되었던 농학연대일꾼수련회에서 전여농과 전여대협이 여성농민운동 및 여농학연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활 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전여대협-한총련-전여농-전농의 농학 4자 연대에 대한 관점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성과로 부경지역 등에서는 이전보다 농활을 준비할 때 여농학연대 주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활을 준비하면서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농활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동영상을 전여농과 전여대협이 함께 제작하고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등 전여농과의 연대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해서는 의식 자체가 매우 부족했다.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의식 자체가 부족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투쟁을 해나가기 위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였다. 충남 예산 차시중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관련해서 계획을 제출한 바 있었지만, 진행된 활동은 그다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이 없고 인식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이후에는 여성노동자 투쟁에 대한 결합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연대사업의 폭과 깊이를 비상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타 연대사업 평가>

청년, 학생단위와의 연대사업

- 3.8 투쟁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단위와의 연대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속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 통일사업 등 청년학생단위와의 연대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여성단체 연대사업

- 대한민국여성축제 등 여러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전여대협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 그러나 여성단체들과의 사업이 사안별로 분절적이며, 여성단체들의 경우 아직까지 전여대협에 대해 사람동원 또는 실무적인 역할을 맡기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많다.

4) 대중의식화 평가

여러 대학에서 대중사업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창발적으로 의식화했다.

그러나 학우들을 사업과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의식화 사업은 매우 부족한 현황입니다.

대중의식화는 학우들의 의식을 높여내고 사업과 투쟁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며 주체로 세워내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의식화가 대중사업에서 기획선전 식으로 1회적으로 진행되면서 내용적으로 심화되거나 상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중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대중사업에서의 1회적인 대중의식화를 뛰어넘어, 한해 대중의식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계획과 내용적 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반하여 대중의식화를 진행할 때, 학우들의 의식을 점차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의식화사업이 학우들의 의식에 기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의식화를 진행하는 것은 학우들의 의식을 높이고 학우들을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것인만큼 학우들의 의식 정도에 기반하여 의식화의 내용과 방도를 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식화사업의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대학에서 학우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학우들의 의식을 토대로 의식화 내용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성폭력운동의 경우 학우들이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떠한지, 생활속에서 학우들이 느끼는 성폭력의 실태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다 보니 성폭력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대중사업 때마다 반복하는 한계가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식화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학우들의 인식이 상승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식화가 일방적인 한계가 나서고 있습니다.

의식화사업이 학우들의 의식에 기반하여 상승할 수 있도록 학우들과의 소통을 통한 의식화사업, 심층적 분석을 통한 상승적 의식화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화가 기동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9기 전여대협 조직사상운동 평가

1) 조직사상사업의 목표에 대한 평가

-여학생운동 대중화 과정에서 몇 해 동안 강조하여 온 조직사상사업의 과제제출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적절한 내용을 제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라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일꾼들의 역할을 높이고 단련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함으로 해서 조직사상사업 측면에서 제출한 목표가 높은 수준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현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분명 객관적으로 어려운 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요구성으로 인해 많은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준비정도가 더 빨리 높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낸 단위들도 있습니다. 그 단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총화를 통해 향후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 객관적인 어려움을 딛고 비약적인 상승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2) 조직사상 사업 평가

① 핵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핵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핵심일꾼들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있는 핵심들도 그 만큼의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대중관과 조직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학우들을 책임지고 학우들과 함께 투쟁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② 조직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가?

활동을 조금은 적극적으로 하는 단위는 지속적으로 조직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중사업을 준비하면서 모이고 계획 짜고 그러는 단위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위는 함께 활동총화도 않고 과나 단대 총화도 없으며 총여학생회의 장기적 전망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③ 학습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총여학생회에 학습을 담당할 만한 사람이 없거나 있더라도 많은 투쟁과 사업으로 인해 학습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세 인식을 낮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을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지 못하며 그러면 혁신도 불가능합니다.

④ 새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새시대에 대한 고민과 새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의 내용과 틀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일이라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고민이 없었거나 전반 상황이 준비되면 고민하지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⑤ 여학생운동 인자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여부 또는 소모임 등의 사업이 몇 단위에서 조금씩 모범을 싹틔우고 있지만 아직 그 또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⑥ 아직도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회 골간 단위와의 마찰이 심합니다.

⑦ 여학생운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많습니다.

4. 전여대협의 핵심적 과제